열등감은 죄악, 부족감은 신앙

(아가 1:5~2:7)

5.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6.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7.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 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오늘 말씀 중심으로 <열등감은 죄악 부족감은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열등감은 죄악 부족감은 신앙'
사람들 앞에서 갖게 되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부족감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부족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 갖는 느낌입니다. 신앙이 올바르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느낌이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법륜스님은 즉문즉설(卽問卽說)로 유명하십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즉각적으로 답을 해줍니다. 한 여성이 법륜 스님에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항상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자는 열등감의 원인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 법륜 스님은 "열등감의 원인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라고 의외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못났다고 여겨서 괴로운 것은 속마음으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길가의 풀 한 포기와 같다고 여긴다면 인생에 고민이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나를 향한 과대평가야말로 인생을 괴롭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환상적인 나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실제의 나의 모습은 항상 못난 모습이기에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환상의 나를 진짜 나

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열등감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러한 열등감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못난 자신을 죽이고 싶은 심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답변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환상적인 나를 만들어 내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환상적 내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끌어들여 채우려는 흡입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철들 때쯤 되면 육체로 접하는 것들의 가치를 느낍니다. 돈을 가지면 마음이 채워지리라 믿게 됩니다. 돈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나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환상적인 나의 모습은 이러한 마음 채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마음을 채워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다른 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본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들인 것들이 신격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동안 환상적인 나는 만들어집니다. 재물 학벌 외모 등의 환상적인 나를 만들어 놓고 실제의 나를 바라보면 열등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다른 신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것이 열등감이기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한편 부족감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삼각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집안에서 배우자를 마주하는 순간에도 이 관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개입하심에 대해서 망각하고 사람만 상대한다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생겨납니다. 반면에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경 쓰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은 언제나 부족감입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부족감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올바른 부족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감이 크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발에도 못이 박혀서 일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할 올바른 부족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12장 9~10절을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함에 대한 느낌을 결코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부족함이 유지되어야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부족감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주고받는 사랑의 고백에서 이러한 주제가 드러납니다. 술람미 여인의 부족함이 드러날수록 솔로몬의 사랑이 더욱 빛이 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음에도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지고지순한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며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음을 통해서 구원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구원의 상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있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람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 사라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모신 상태에서 대하고, 이삭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모신 상태에서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눈앞에서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있는 한 우리의 부족감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하는 선민들의 마음의 정서가 잘 드러납니다. 믿음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5절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에서 포도원을 가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포도원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 여인을 보고 반해서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상황 자체는 너무나 기쁘지만 솔로몬이 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에는 자신보다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땡볕에서 포도원을 돌보는 동안에 피부가 게달의 장막과 같이 암갈색이 되었습니다. '게달의 장막'이란 베두인 족속의 장막을 말하는데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거무칙칙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자기 외모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의지한 믿음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의 세련된 여자들에 비해서 형편없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확신이 생겨났고 타인에 대한 열등감은 극복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해 느꼈던 감정은 열등감이었지만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보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는 사랑을 더 무겁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자리에는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훨씬 부차적이고 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 왕들의 관례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경치 좋은 곳을 찾아서 장막을 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장막은 비록 며칠 동안 머무는 곳이지만,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보내는 삶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겨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충분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설령 일부의 관심만 받았어도 세상의 누구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진대, 심지어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 세상의 누구 앞에서도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부러움은 곧 열등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월감이나 시기나 선망하는 것도 타인에 대한 열등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충만해진다면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대단한 사람 앞에 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못났다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 있다고 해서 잘난 척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열등감 우월감 시기 질투 선망 부러움도 신앙에는 마땅치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몸을 가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 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라고 하였습니다.
술람미 여인 자신과 솔로몬 왕의 격차가 마치 양과 목자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입니다. 동네에서 만나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TV에서 보니 대통령 수행 비서를 하면서 대통령께 진언을 하는 참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 술람미 여인의 부족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의 창녀들이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일에 바빠서 자신에게 무관심하게 될 것을 걱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딸들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많았지만 정작 솔로몬의 마음은 먼 곳에 가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뿐 자야'라고 하는 말은 여인 중에 솔로몬의 마음에서 가장 어여쁘게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가서가 지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6~8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부족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잊으신다 할지라도 이런 나의 염려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예쁘게 여기신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하실까요?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눠서 갖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완전한 것입니다. 각자가 나만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75억 명에게 사랑을 주실지라도 그 사랑의 크기는 한 명에게만 주실 때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사람을 완전히 사랑할 때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되, 그 무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의 주인공으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은 다 주변인물로 보십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나를 주변인물로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솔로몬이 드디어 나섭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일하는 동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 하시면서도 나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이 바로 술람미 여인에게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에게 애마'라고 합니다. 이 애마가 명품 자동차 마

이바흐입니다. 이 차를 무척 아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 있어서 왕의 병거는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병거를 끄는 말은 최고의 말이었습니다. 말이 귀한 나라는 외국에서 준마를 수입해서라도 병거를 끌게 했습니다. 당연히 왕은 국력의 상징인 병거와 말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법륜스님이 열등감을 얘기하는 여성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의 이유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거칠고 투박한 외모 때문에 솔로몬 왕 앞에서 겨우 열등감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국사를 논하는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솔로몬이 '혹시 나를 기억할까'라는 생각을 할 즈음에,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가 준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시골처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비록 자신의 외모를 투박하다고 여길지언정 솔로몬 마음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고받음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고, 솔로몬은 그럼에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앞서 보았던 법륜 스님의 즉문즉답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내가 길가의 풀 한 포기와 같다고 여긴다면 인생에 고민이 없고 열등감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론'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평지를 말합니다. 길이가 90km이고 폭이 20km인 이 넓은 평지에 수선화가 한 송이 피었다면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자신이 그런 여자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도 마찬가지 의미의 표현입니다. 인적 없는 골짜기에 백합화가 피든 말든 누가 관심을 가질 것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장 2절에서 솔로몬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답합니다.

주변의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들을 오히려 가시나무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살다가,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에 가시나무 사이에서 백합화를 본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백합화일지라도 눈에 띄지 않는 골짜기의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서 피어난 가장 눈에 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사랑에 의지해서 극복되는 과정에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전하려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를 붙이면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재미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족함을 고백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이끌어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완벽한 표현은 바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입

니다. 손발은 못에 박혀서 꼼짝할 수 없고, 머리는 가시관을 써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부족감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실제로 삶에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나의 부족감을 100% 표현하면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삶의 현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